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5. 1.(월)

한덕수 국무총리, 「마크 브라운」 쿡제도 총리 회담

-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
- 2023 한-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,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브라운(Mark Brown) 쿡제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△양국관계 △2030 부산세계박람회 △2023 한-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△분야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한 총리는 브라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면서, 올해 양국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양국 간 우호·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 -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「자유, 평화,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」에 따라 쿡제도 등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 - 브라운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,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평가했다.
-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쿡제도측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.
 - 브라운 총리는 어제(4.30) 부산을 방문하여 2030 세계박람회의 후보지인 부산의 아름다움과 발달한 관광산업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면서, 한국의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.

- 한 총리는 5.29(월)-30(화) 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「2023 한-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」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로서 양국간 협력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, 국제도축이 태평양도서국포럼(PIF) 의장국으로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.
 - 브라운 총리는 한-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환영하면서, 이를 통해 역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.
- 양 총리는 △경제 △해양 △기후변화 등에서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이번 한-국제도 총리회담은 양국 간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, 인태전략 이행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동현	044-200-2133

「마크 브라운」 국제도 총리 인적사항

성 명	마크 <u>브라운</u> (Mark <u>Brown</u>)	
생년월일	1963.2.28. (만 60세)	
학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시대학교 공공분야관리학 수료 ○ 사우스퍼시픽대학교 경영학 석사 	
주요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 - 현재 총리 ○ 2018 - 2020 부총리 겸 재무장관 ○ 2010 - 2018 재무장관 ○ 2010 - 현재 국회의원(3선) ○ 2001 - 2010 부동산 회사 근무 ○ 1999 - 2001 농림차관 ○ 1991 - 1999 총리실 및 공공인사위원회 근무 	
방한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 녹색기후기금(GCF) 포럼 참석차 방한(9.12-16) ○ 2003년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 참석차 방한(5.2-5) 	
참고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91년부터 총리실 정책자문관, 농림차관 등으로 근무 ○ 2001년부터 정치에 입문한 2010년까지는 부동산 업계 등 민간 분야에서 활동 	